

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동향 조사 보고

'14. 12. 10(수)
모스크바사무소

□ 푸틴 대통령,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* 중단 발표 (12.1)

- * 러 국영가스기업 Gazprom이 흑해를 통과하는 해저 가스관을 건설하여 불가리아, 세르비아, 헝가리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에 연간 630억 m³ (유럽 연간 가스소비량의 12%)의 가스를 수출하려던 사업(약 450억 달러 규모)
- 푸틴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불가리아의 승인 지연, EU 집행위의 사업 방해를 이유로 South Stream 사업 중단 선언
 - 대신 2015. 1월부터 Blue Stream 가스관(러시아·흑해·터키)을 통해 터키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연간 30억 m³ 늘리고, 가격을 6% 인하할 계획 발표
- South Stream 가스관이 통과할 예정이었던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향후 가스공급 문제 및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, EU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.
 - 한편, EU측은 동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EU 규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을 이해할 수 없으며, 러측과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

□ 2015년도 러시아 정부 예산 확정 (12.3)

- 푸틴 대통령, 2015년도 러시아 정부 예산안*(세출 2,900억 달러, 세입 2,825억 달러 수준)에 서명
- * 러 정부 예산안은 경제개발부가 작성하여 지난 11.21 러 하원 승인을 받았으며,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확정
- 이번 예산안은 2015년 국제유가 배럴당 100 달러, 물가상승률 5.5%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하에 수립되어, 전문가들은 예산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- 러 경제개발부도 2015년도 국제유가를 배럴당 80 달러로 전망한 바 있으며,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시 러 정부 재정 수입은 20억 달러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
-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년 11월에 9.1%를 기록했으며, 일각에서는 내년 말까지 10%에 달할 것으로 전망
 - 물가상승률은 최근 루블화 환율 급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러 정부의 서방 농식품 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태임

□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 공급사업, 러시아 Metrovagonmash 낙찰

- 모스크바시는 향후 30년간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 768대(총 32억 달러 상당)를 제작·납품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진행 중이며, 1차 입찰(차량 96대)에서 러시아 Metrovagonmash*가 최종 낙찰
 - * 러시아 최대의 철도차량·장비 제작회사인 Transmashholding의 자회사로 1930년대 부터 모스크바시에 독점적으로 지하철 차량을 납품, 금년 2월에도 모스크바시와 차량 832대(30억 달러 상당) 납품계약 체결
- 이번 입찰에는 현대로템, 독일 Siemens, 캐나다 Bombardier, 스위스 Alstom 등 다수의 해외 기업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나, 모두 입찰 진행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Metrovagonmash가 단독 응찰
 - Siemens 러시아 지사장 Dietrich Moeller는 이번 입찰 조건이 여타 국가의 지하철 차량 공급 입찰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, 입찰에 계속 참여했다더라도 낙찰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언급
 - 캐나다 Bombardier는 금번 입찰이 처음부터 러시아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조건*이었다면서, 러시아 반독점청에 항의 서한 전달
 - * 금번 입찰시 러시아 국내산 부품이 차량 부품의 70%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부과

□ 러 정부, Rosneft사 주식 19.5% 민간 매각 결정

-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 최대의 석유기업인 Rosneft사 지분 19.5%를 민간에 매각기로 결정

- Rosneft사 주식 약 20억 주(株)가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예정이며, 2006년 동사 상장가격(IPO 벤치마크 가격) 이상에서 거래 가능
- 러 정부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해 왔으며, '13년 6월, 「2014~2016년 민영화 계획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9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할 것을 발표
- 최근 러시아 경기둔화 및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로스네프트 등 주요 국영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분 매각이 계속 지연되었으나, 금년 9월 Ulyukayev 경제개발부 장관이 로스네프트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민영화 논의 다시 재개

□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 동향

- (이란)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란으로부터 1일 평균 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, 러시아는 곡물·기계류 등 현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협정이 금년 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(12.4)
- 동 협정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, 정확한 총 원유수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Reuter 등 언론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
- 미 국무부 Jen Psaki 대변인은 러시아-이란간 석유공급 협정을 주시하고 있으며, 동 협정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
- (슬로바키아) 러시아는 슬로바키아에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매년 6백만 톤의 원유를 수출하는 내용의 협정 체결 (12.5)
- 원유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, 최근 국제 평균가격(배럴 당 85 달러)을 적용해 계산하면 약 37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

자료원: 현지 및 해외언론(Moscowtimes, Reuters 등) 기사